



## 05. 나에게 맞는 직업탐색과 직업창조 전략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선택의 범위 넓히기</li> <li>▪ 진로방향 설정</li> <li>▪ 나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 선택, 창조하기</li> </ul>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li> <li>▪ 올바른 진로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li> <li>▪ 나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하며 나아가 창조할 수 있다.</li> </ul>

### <진로지도의 첫 걸음>

자신에게 맞는 직업 탐색과 직업 창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직업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직업을 창조하는 전략에 이르기 까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직업 선택에 대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직업이란 것이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 다 다르겠지만 부가가치를 올리는 경제적 활동과 예전에는 돈을 벌지 않는 행동은 직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회 부가가치를 비경제적인 활동도 직업이라고 하는데 통상 직업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직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첫 번째 공무원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연예인? 아니면 선생님? 아니면 네 번째 운동선수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연예인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다고요? 저도 연예인이 가장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sbs 세대공감 1억 퀴즈쇼>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첫 번째로 공무원이 42.5% 연예인이 38.8%로 2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의 해외 토픽 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방송국에서 정식기자가 아닌 외신부 기자로 일할 때가 있었는데, 말이 정식 기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언론고시를 위해 퇴근한 이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선생님들 임용고시 시험보실 때 기억나세요? 한번 만에 되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마 도서관에서 다들 공부들 열심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잘 모르지만 자주 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눈빛으로 공부하고 계시구나... 그쪽도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도 또 보면 아 떨어지셨구나.., 그런 낯익은 얼굴들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도서관에 가다 보니 그런 분이 한분 계셨는데요, 그 분이 10년 넘게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계속 도서관에서 갈 때 마다 보이는 것이 완벽하게 공부하고 계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한 해 9급 공무원 시험에만 20만 명이 몰린다고 합니

다. 청년들이 100만 명이라고 바라본다면 5명에 1명꼴로 9급 공무원 시험에 몰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시험에 몰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가치 수, 알고 있는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깐 몰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도 3분, 5분 만에 스마트 폰 없이 직업을 써보라고 해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써보세요. 3분이거나 5분이면 몇 가지나 쓸 수 있을 까요? 만약 1시간 드린다면 선생님들 직업 100가지 이상 쓰실 수 있을 까요? 200,300가지 넘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가지수가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업 가지 수가 얼마나 될까요? 매년 직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 가지 수가 2015년 기준으로 14881가지인데요,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직업이 10만 가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직업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고 창작이라고 하는데요,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선택범위가 굉장히 협소한데요, 바라보는 것이 부모님들 선생님들, TV게임에서 보는 캐릭터, 영화에서 보는 특정한 직업들 제외하고는 너무 한계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넓혀줄 수 있을까? 시야를 넓혀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겠지요. 우리 학생들이 새롭게 생성되는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둠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들, 신 직업 소개하는 것도 좋겠지요. 모둠별로 신 직업 10가지 찾아보기를 해서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직업도 있구나 서로 느끼고 깨닫고 하도록 만들어 준다면 학생들이 이런 직업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새로운 직업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거쳐 보시길 권합니다.

## <진로지도의 이해>

진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비전부터 수립해야 합니다. 진로 방향은 크게 조직구성원, 전문가, 사업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첫째, 조직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 자질이 무엇인가? 둘째, 3 모험적인 일보다 안정적인 일을 선호하는가? 셋째,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체질에 맞는가? 넷째, 규칙적, 규범적 생활에 잘 적응하는가? 다섯째, 조직이라는 후광, 인맥, 네트워킹, 학습지원 및 기회, 복지후생 제도, 다양한 업무 경험, 승진이나 보직 이동을 통한 다양한 변화 가능, 임원 승진 시 사업하는 것보다 유리한 부분 등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장점을 파악하고 있는가? 이와 같이 ~6 조직 생활을 위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학생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로방향의 유형 중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질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상위 0.1%안에 드는 나만의 전문분야가 구축되어 있는가? 즉, 차별화된 전문역량이 구축되어 있는가? 둘째, 한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들 인내심이 있는가? 셋째, 단순, 반복적인 일을 되풀이할 수 있는가? 넷째, 시대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가? 다섯째, 집중력과 창의력이 뛰어난가? 이와 같이 ~6 전문가가 되기 위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학생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로방향의 유형 중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질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직접적인 사업경험이 있는가? 둘째, 성공 기업과 실패 기업을 분석한 경험이 있는가? 셋째, 성공 기업인, 실패 기업인을 탐구해본 경험이 있는가? 넷째, 성공 혹은 실패한 아이템, 서비스를 연구해본 경험이 있는가? 다섯째,

기업가 정신, 도전정신, 산업분석, 비즈니스 마인드, 행동력, 변화인식 및 수용능력 등 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이와 같이 ~6 사업가가 되기 위해 검토해야 될 사항들을 학생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진로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규모별, 업종별, 형태별로 구분하여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상장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있고, 업종별로는 자동차, 서비스, 반도체, 전기/전자, 유통, 교육업, IT 등이 있습니다. 형태별로는 공공기관, 외국계기업, 지방기업, 학교, 봉사단체 등이 있고, 고용형태별로는 창업, 계약직,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직업 탐색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작은 경험이라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직업검사를 통하여 직업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홀랜드, 직업선호도, 스트롱 등의 직업 검사를 통해 나의 직업흥미 특성과 잘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격검사를 통하여 직업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MBTI, 에니어그램, DISK, Big5 등의 성격검사를 통해 나의 성격유형에 맞는 직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넷째, 적성검사를 통하여 직업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적성, 다중지능, 버크만 검사 등의 적성검사를 통해 나의 적성과 역량에 잘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워크넷을 통하여 직업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 중 지식으로 찾기 혹은 업무수행능력으로 찾기, 통합 찾기를 활용하시면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커리어넷을 통하여 직업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커리어넷, 즉 [www.career.go.kr](http://www.career.go.kr)을 방문하시면 다양하게 분류된 직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섯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맞는 직업 탐색의 방법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직업 선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직업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선택 요인에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아마 경제력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보면 돈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사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 기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돈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부모나 명예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돈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 청년들 바라보면 ‘저는 돈이 아닌데요?’ 라는 청년들을 아마 많이 마주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데요, 사회 공헌할 수 있는 일, 자아를 실현하는 일, 꿈과 비전을 목표로 하는 일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취감이나 보람이나 즐거움이나 재미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말하자면 직업관, 직업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치관을 정하는 것은 직업을 선택 하는 것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 일, 학생이 원하는 직업과 부모가 원하는 직업이 다를 수 있겠죠. 또는 학생이더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A B C 이렇게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저는 “선택결정시트” 누군가는 대차대조표라고 하더라고요, 직업 선택항목을 첫 번째로 뽑아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잘 할 수 있는 일인지, 이렇게 항목들을 뽑아보는 것입니다. 연봉도 솔직하게 적어보도록 하고, 정해진 포맷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의 아까 선택결정항목들을 바라보도록 하고 어떤 기준으로 알아볼 것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가중치도 10점 10점 10점 배정하는 것이 아니겠

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이것이 30점도 될 수 있고 많게는 50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연애할 때 외모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마음씨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머 감각을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중치를 나눠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A B C 라는 직업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 중에 점수가 많이 나온 것을 일단은 선택해보도록 합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변인이 있는 것은 어렵구요, 3~5가지 직업을 통해서 학생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탐색해보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꿈꾸는 일이 하나고 있고, 조금 어려운 일 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이나 현실적인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조금 구분해서 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마구 쓰도록 하고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직업 아니면 꿈꾸는 직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학생이 선택할 직업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하나 둘 세 개를 해 보고요, 항상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직업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직업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나 친구를 통해서나, 선생님을 통해서나 제 4의 직업을 스스로의 탐색을 통해서 제 4의 직업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올바른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를 알려줘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운명은 나 스스로 개척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완벽한 직업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무조건 최상의 선택보다는 차선의 선택에도 만족해야 한다는 것. 직업에는 왜곡된 신념이나 비합리적 신념이 많은데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남들 보기에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신념이 없는지 검토해 보고요, 자신이 한 선택에는 모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모님 선생님이 아닌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태도도 가르쳐 주고요, 실수해도 괜찮다, 너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격려해주시고 너무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자기 삶에 하나하나 마주치는 과정에 충실 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직업을 창조해볼 것인데요, 어떤 직업은 통합이 되어서 버스 차장 소멸이 되었고, 어떤 직업은 확대되고 생성되고 확장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웹마스터 같은 경우에도 직업이 더 세분화 되어 웹 프로듀서, 웹디자이너, 웹 기획, 웹 엔지니어, 웹 마케팅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 관리, 보험 판매, 보험영업 계획원으로 통합이 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진화과정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생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절로 생성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서 생성이 됩니다. Needs 라고 하죠. 욕구에 따라서 산업구조에 따라서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형 과정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의사도 똑같은 의사가 아니겠죠. 강사도 똑같은 강사가 아니고 디자이너도 똑같은 것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어떤 직업은 성장을 하게 되고 어떤 직업은 쇠퇴를 하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직업을 창조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 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직업을 창조 할 수 있을지 모둠 학습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은데요, 5가지 정도 직업을 창조하는 방법을 내세웁니다. 첫 번째가 세분화 전문화라고 봅니다. 하나를 더 깊숙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대체로 장인들이죠. 한 분야에 대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분야를 깊숙하게 바라볼 때 그 분야에 전문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 분 중에 유명한 기자분이 되었는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되지 못하고 기자가 되었는데 그냥 기자가 아닌 의학 전문 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케터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아는 젊은 청년은 페이스북 마케팅을 하는데 매출 많이 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문화하고 세분화 하고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이 직업을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하는 것인데요, 산업이나 서비스나 상품도 서로 다른 것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먹는 화장품, 과일과 화장품이라는 것을 만들어 냅니다. 전화기와 컴퓨터와 mp3와 이런 것들을 스마트 폰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IT와 보안, 인터넷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전담하는 경찰, 그래서 사이버 전담 경찰. 사이버 보안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태권도를 하고 싶은데 태권도는 4단이고 디자인학과 학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전혀 다른 분야 아닙니까? 만약 이 친구가 디자인을 한다, 라면 스포츠 디자인 전문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디자인 분야를 열심히 하고 디자인은 나중에 파트타임으로 하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디자인이나 미적 감각을 전달해 준다면 학부모도 훨씬 좋아하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할 때 나만의 독특한 직업이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있는 직업 그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42번 버스기사 이상덕 기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화초 버스라고도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버스 노선이 대학에 많이 갑니다. 대학에 내릴 때 이 기사분이 그렇게 멘트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 여러분 많이 주무셨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응원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학교 가서는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오늘 바꾸면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파이팅!”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산도 나눠주시고 학생들 꿈도 응원하니깐 그 일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순수하게 일 그 자체를 즐긴다, 라면 그것이야 말로 직업을 창조할 수 있는 남다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내 직업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여행가로 활동하다가 오지 탐험가로 활동하다가 긴급 구호활동가로 활동하다가 베스트셀러 저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누구니까? 여러분 금방 한비야씨가 떠오르죠? 만약 한비야씨가 앞으로 더 나아간다면 NGO라든지 단체라든지 NGO 바탕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 데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자신의 일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 한다 라면 그것이 하나의 또 직업이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산업화입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나가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집을 짓는데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며칠 걸릴까요? 중국에서 실제로 하루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린터인데 거대한 레미콘 차량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면 집을 만들고, 하루 말리고 하루면 택배가 돼서 3일이면 집이 배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상 구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그냥 단순한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디자인을 가미 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이 스피디하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속속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자신만의 직업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를 할 수 있다면 성적이 1등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 흥미, 관심, 좋아하는 공부라든지 이러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 자신만의 직업을 창조해 낼 수 있을 까 이렇게 고민해보도록 도와주신다면 좋겠죠? 어떻게 오늘 강의 많이 도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자신만의 직업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권하겠습니다.